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September 2014, pp.160~171.*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말총공예 전통의 지속과 변화

황경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국/문/초/록

국가에서는 수작업에 따른 높은 가격과 수요가 없어 작품판매가 부진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전통공예품 제작 활성화와 활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승자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전통공예품관리 시스템 마련과 전통공예품은행 설치, 국내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설 전시관 운영 등 전통공예품 활용과 관리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통공예품 지원책은 전통공예품의 체계적 관리, 무형문화재에 관심제고, 해외에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온 반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하여 이수자 확보, 보유자 지원, 종목 활성화 등 협력적 관계망 구성'이라는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자원으로서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예가 처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전승현장, 그리고 전승자를 포함한 전승집단과 공동체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생활과 유리되어 사회적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제작기술의 단절이 우려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취약 종목인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 말총공예분야의 전통의 지속과 변화를 국가의 보호정책을 통해 살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말총공예의 전승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총공예 제작기술의 전수, 원재료 수급과 수요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말총공예, 마미(馬尾)공예, 전통공예,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투고일자 : 2014. 06. 30 I 심사일자 : 2014. 07. 17 I 게재확정일자 : 2014. 08. 08

머리말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중에서 말총공예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의 3종목이다. 특히 갓일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에서 2년 후인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될 만큼 보호의 시급성이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갓일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 수요가 거의 없어 여전히 제작기술 단절이 우려되는 전승취약 종목이라는 점이다.

국가는 생활여건의 변화로 대중성이 적어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비인기 종목으로서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전승취약종목으로 분류하여 우대지원을 해왔다. 이에 반해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인기종목으로서 전승에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을 활성화 종목으로 구분하여 월정 전승지원금, 전승장비 구입지원, 재료비 구입보조, 작품구입, 특별지원 등 각종 행사지원에 차등지원하고 있다.[01]

이처럼 국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예전승 활동을 촉진하거나 활성화하여 전통공예 문화의 대국민 확산에 기여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전승이 취약한 공예종목이 처한 현실이 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전승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통공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공예산업으로서의 진흥책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예산 지원책에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중에서 유사종목을 함께 분석하여 해당 분류별 종목의 전승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글에서는 제작기술의 단절이 우려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취약 종목인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 말총공예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의 보호정책을 통해 전통의 지속과 변화를 살피고 이를 통해 전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논의를 위해 1960년대 말총공예의 현황과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지정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공예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문화와의 연관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 평안도 정주와 태천, 함경도의 정평,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의 가덕도 등 전국적으로 말총생산과 공예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현대화와 더불어 갓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아 1960년대에 이르러 통영과 제주에만 소수의 장인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국가는 말총공예 기술로서 갓일 제작기술의 보존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로 '갓일'을 지정하였고, 1980년에는 '망건장', '탕건장'을 지정하였다. 말총공예는 제작 과정에 기계사용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수공예이다. 말총을 주 재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종목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승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의 열악한 전승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총공예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전승체계 구축

1. 말총공예분야 실태조사와 '갓일'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국가에서는 말총공예분야에 대한 전승실태조사를 1964년에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문화재위원 예용해(芮庸海)와 전문위원 이두현(李杜鉉)이 1964년 10월 19일에 문교부 문화재관리국(현재 문화재청)에 제출한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四號 갓일(笠子匠 · 양태匠 · 총帽子匠)」에 따르

01 취약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3년을 주기로 재선정하며, 활성화 노력도 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취약종목 재선정 시 반영하고 있다. 자생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취약종목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2008년 4월 선정된 취약종목은 2011년, 2014년에 재선정하였다. 선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목 그 자체의 취약성으로 선정하되 전승자 개인의 빈부격차 일부 반영. 나. 단체종목은 제외. 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복수 보유자 인정종목의 경우 평가결과 값을 평균하여 적용. 라. 활성화 노력도에 대한 평가 강화로 활성화 및 자생노력 유도 등이다.

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충무시(현재 통영시)와 거제군 둔덕(屯德)등지의 공방을 돌아보고 민속공예기술(죽세공품, 馬尾공예) 현황을 조사하였다.

'양태 및 갓工藝 重要無形文化財 指定에 관한 理由書'에는 민속공예기술(竹細공예, 馬尾공예)로서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시급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아울러 입자(笠子)의 역사에 대해 전술하고 양태, 총모자, 갓일의 제작공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양태장(모만환, 제학진), 총모자장(고재구), 입자장(전덕기, 류상윤, 김봉주) 6명의 보유자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총모자장에 고재구, 양태장에 모만환, 입자장에 전덕기 3명을 '갓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갓은 말총과 대나무, 명주실과 명주천을 재료로 모자집을 엮는 총모자장과 갓의 테를 엮는 양태장, 이것을 연결하여 조립하는 입자장의 세분된 분업과 협업에 의해 완성된다. 이에 따라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갓일 종목을 지정하면서 총모자장, 양태장, 입자장 세 가지의 세부기능별로 보유자를 인정한 것이다. 이 당시에 '갓일' 외에 탕건장과 망건장의 지정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64년에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처음 조사한 이후, 국가에서는 1967년에 김영돈을 통해 제주도의 말총공예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1967년 10월과 11월 2개월간 이루어졌다. 그해 11월에 김영돈이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重要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34號 濟州道民의 民間工藝(凉太 · 총모자 · 탕건 · 中心함」에는 거제와 통영 외에 제주도의 말총공예 현황조사를 추진하는 연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作業은 忠武市(統營)와 巨濟郡을 除外하면 濟州道에만 이 傳承되어 내려오는 바 忠武市 巨濟郡의 境遇는 그 作業傳承者가 다들 男子일뿐더러 傳承者數가 너무나 稀少하여 훗날에는 韓國 傳統的인 冠細工의 面貌를 살펴 볼 수 없는 憂慮를 느낍니다...(중략)

調査한 結果 忠武市나 巨濟郡의 境遇에 比하여 傳承者가 아직도 많기는 하되 近間 數年 사이에 급자기 衰退一路에 놓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전부 婦女子들만이 作業하는가 하면...(중략) 忠武市(統營)와 巨濟郡 屯德等地에서의 作業 過程과 差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貴重한 手工藝가 몇 年後에는 正統的인 作業 實況을 찾아볼 수 없을 憂慮를 느낀 나머지 重要無形文化財 指定이 時急함을 切感하고 그 指定을 仰願하오면서 諸般 資料를 提出합니다."[02]

이에 따르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였고, 당시 공예전승기술을 보유한 대상자가 이미 고령이어서 말총의 산지인 제주도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1967년 제주는 육지에 비해 말총공예 전승자가 많은 편이었으며, 여성들의 대표적인 수공예로 육지와 기술이 다소 다름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몇 년 후에는 제주도에서도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전승자 인정을 제안하였다.

제주도에서 갓 제작을 위한 공정과정에 해당하는 양태, 총모자와 탕건 공예기술은 부녀자들의 대표적인 수공예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김영돈이 조사할 당시 70세 내외의 여성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북제주군 애월면(涯月面) 하귀(下貴)에서부터 동쪽 조천면 (朝天面) 신흥리(新興里)까지 부녀자들의 필수 부업으로서 말총공예가 집집마다 성행했었다는 구술을 통해 오래전부터 말총공예가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진성동(陳城洞)을 위시한 제주시내와 서쪽의 도두(道頭), 이호(梨湖), 외도(外都), 하귀(下貴), 금덕(金德), 광령

02 金榮敦, (1967年 11月),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34號 濟州道民의 民間工藝(凉太 · 총모자 · 宕巾 中心함」, '양태, 총모자, 탕건 工藝」重要文化財 指定에 대한 理由書', 文敎部文化財管理局.

(光令), 수산(水山) 등지에는 총모자 제작이 성행하였고, 그 동쪽인 삼양(三陽)을 중심으로 화북(禾北), 신촌(新村), 와흘(臥屹) 등지에는 양태 제작이, 그리고 조천(朝天), 신흥(新興), 함덕(咸德) 등지에는 망건 작업을 주로 하였다. 또한 화북(禾北)을 위시한 삼양(三陽), 신흥(新興), 도연(道蓮) 등지에는 탕건 제작이 각각 성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말총공예 중심지

말총공예제작 기술	주요 제작지역
총모자	제주시내(진성동 중심), 도두, 외도, 이호 하귀, 금덕, 광령, 수산
양태	삼양, 화북 신촌, 와흘
탕건	화북, 삼양, 신흥, 도연
망건	조천, 신흥, 함덕

당시 이러한 주요 지역의 여자 아이들은 6~7세만 되면 누구나 농한기에 말총공예 작업에 참여해서 점차 기술을 익힌다. 이로써 가정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했다. 말총공예의 수입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가옥과 전지(田地)를 사들일 만큼 생계유지의 방편이었다.

당시 관덕정(觀德亭), 삼양(三陽), 조천(朝天) 등 3개 5일장에서는 양태, 총모자, 탕건, 망건 등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특히 관덕정 시장에서는 총모자와 탕건이, 삼양시장에서는 탕건과 양태 매매가 이루어졌고, 조천시장에서는 망건매매가 주를 이루었다.

상인들은 장날마다 이를 사들여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국 각지로 운송했었다. 서울, 대구, 예산, 제천, 청주 등지를 비롯한 본토 각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만주 북간도에 나간 교포들의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양태, 탕건, 망건은 직접 시장에서 직매되었지만, 총모자만은 예전부터 중상인(중간상인)이 있었다. 중간상인들이 정리 작업을 마친 후 도매상에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말총공예 마을이 분포된 이유에 대해 김영돈은 제주도 내에서 마을이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즉 오랜 세월동안 조천포(朝天浦)와 화북포(別力浦), 산지포(山底浦)가 본토와의 주요한 관문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태, 총모자, 탕건, 망건 작업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이 지역에 유입되어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아울러 이 세 포구를 중심으로 하귀, 신흥 사이에서 제작된 제품은 다시 이들 포구를 통하여 본토로 보내졌고, 재료를 반입해 들이는데 용이했을 것이라는 것이다.[03]

2. '망건장', '탕건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입자장의 전덕기 보유자가 1972년에 사망하고, 양태장의 모만환이 1971년에 사망하게 된다. 「重要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四號의 追加」보고서(1973, 예용해, 박성삼, 이종석)에 의하면 초대 보유자 3명 중에서 총모자장의 고재구만 생존하게 되자 나머지 양태장과 입자장을 이을 보유자 조사를 추진하였고, 우선 입자장에 전덕기와 함께 작업을 했던 김봉주(1903년생, 경남 거제군 사등면 지석리)를 갓일 기능보유자로 추가 조사하여 1973년에 보유자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총모자장으로 인정된 고재구 옹마저 1979년에 사망하였고, 1973년 입자장으로 추가 인정된 김봉주 보유자도 1977년에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이 지정되면서 함께 보유자로 인정된 총모자장, 입자장, 양태장 보유자 3명과 입자장 추가 보유자까지 모

03 1925년 통계로 볼때 당시 말총공예가 매우 성행 했음을 알 수 있다.

종류	종사호수	연간 생산수량	가격
양태	13,700	125,000	405,000원
탕건	128	9,300	15,810원
망건	712	59,000	59,000원

두 4명이 사망하게 되어 갓일 분야별 전승자는 공석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 보유자가 모두 사망하자 1980년에는 당시 문화재전문위원 이종석을 통해 추가 보유자 인정을 모색한다. 주목할 점은 이때 이종석은 말총공예인 망건과 탕건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도 함께 건의하였다는 것이다. 1980년에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무형문화재 약보고서 갓일, 탕건장, 망건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의 旣指定 기능보유자 3인이 모두 작고하였으므로 그 技能의 대를 이어 補缺指定할 것과, 이와 매우 연관있는 작업인 망건 · 탕건의 技能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 사람을 그 후보로 품신합니다."

주지 하듯이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을 여며 음접하기 위하여 이마에 동여매는 머리띠이다. 개화이래 삭발로 말미암아 망건제작 역시 점차 쇠퇴하였다. 명주실로 그물처럼 얽어 사용했을 것이나 점차 인모나 말총으로 떠서 장기간 착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갓의 총모자와 탕건, 정자관 등과 더불어 말총공예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종석은 보고서에 망건 지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망건의 생산은 朝鮮후기에 石城, 大邱(규합총서), 金提(성호사설) 등지가 유명했으나 현재는 完州에서 老匠이 한사람 발견될 뿐 주로 濟州의 특산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의 망건匠들은 모두 여성인데 말총을 뜰 줄만 알뿐 당줄을 걸어 完製品化 할 줄을 모른다. 貫子에 의한 身分體系가 무너진 것도 말할 나위가 없다. 그만큼 망건은 馬尾공예중에서도 가장 소멸상태에 있다."

한편 탕건에 대해서는 망건보다는 제작이 용이하며 평상시에 쓰는 것이어서 망건보다는 늦게까지 보급되어 왔고, 생산지로 완주(完州)가 유명했다. 그러나 제주출신의 여성들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이며, 탕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정자관(程子冠)과 사방관(四方冠)을 제작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탕건장 종목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종석이 조사한 1980년에는 총모자와 망건, 탕건 등의 직조기술이 모자, 브로치, 허리띠 등으로 관광토산품 개발에 응용되어 제주시 화북동 인근의 수 백명의 여성이 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숙련된 사람을 찾기 위해 연령층을 고려하여 도문화공보실과 지역 주민 몇 명의 도움을 받아 망건과 양태는 삼양동을 중심으로, 탕건은 화북동, 총모자는 도두리를 집중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 표 2 】중요무형문화재 말총공예분야 전승자 현황

종목	인정기능	구분	전승자
갓일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1964.12.24)	입자	보유자	故전덕기(田德基, 1897~1972), '64.12.24. 인정
			故김봉주(金鳳珠, 1903~1977), '64.12.24. 인정
			정춘모(鄭春模, 1940~), '91.5.1. 인정
			박창영(朴昌榮, 1943~), '00.7.22. 인정
	양태	보유자	故모만환(牟晩煥, 1887~1971), '64.12.24. 인정
			故고정생(高丁生, 1904~1980), '80.11.17. 인정
			장순자(張順子, 1940~), '00.7.22. 인정
	총모자	보유자	故고재구(高在九, 1898~1979), '64.12.24 인정
			故오송죽(吳松竹, 1907~1984) '80.11.17 인정
		명예보유자	'85.2.1 보유자 인정 김 인(金仁, 1920~), '09.2.24 명예보유자 인정
		보유자	강순자(康順子, 1946~) '09.9.25 인정
망건장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1980.11.17)	망건	명예보유자	이수여(李受汝, 1923~), '87.1.5 보유자 인정 '09.2.24 명예보유자 인정
		보유자	강전향(姜全香, 1943~) '09.9.25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임덕수(林德洙, 1903~1985), '80.11.17 인정
		전수교육조교	양진숙(梁珍淑, 1956~), '90.10.10 선정
탕건장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1980.11.17)	탕건	명예보유자	김공춘(金功春, 1919~), '80.11.17 보유자 인정 '09.2.24. 명예보유자 인정
		보유자	김혜정(金惠正, 1946~), '09.9.25 인정

이 보고서의 「갓,망건,탕건의 指定에 관한 意見」에는 갓일의 입자장으로 당시 40세였던 정춘모를, 양태장에 제주의

고정생, 총모자장에 오송죽을 추천하고, 아울러 망건장에 완주의 임덕수, 제주의 이수여, 탕건장에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김공춘을 추천하였다.

그 결과 40세인 정춘모를 제외한 제주지역의 고정생, 오송죽이 갓일에, 망건장에 임덕수가, 탕건장에 김공춘이 1980년 11월 17일자로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3. 말총공예 주요 전승지 변화의 의미

1964년에 말총공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았으며,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 또한 체계적이기 어려웠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초기 조사 시, 충분한 조사시간을 두고 전국조사를 실시해야 했으며 연령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 망건장과 탕건장 지정시에도 1967년에 조사한 제주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말총공예는 원래 거제군과 충무시를 제외하면 제주도에서만 전승되어 왔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1964년에 갓일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고 이와 함께 보유자로 인정된 때 이미 전국적으로 말총공예의 수요가 거의 없었다. 판매가 되는 곳은 전국에 몇 곳 있었으나, 제작이 가능한 지역은 예천, 충무, 거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충무 거제지역의 장인들은 무형문화재로 인정될 당시 이미 70대였고, 인정이후 짧게는 6년에서 15년 사이에 모두 사망했다.

그 뒤를 이을 전수교육체계가 공고하지 않았던 때여서 특히 양태와 총모자 기술은 적어도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전승체계 내에서는 단절되어 전승의 맥이 끊어진 것이다.

제주도에서 갓제작은 1967년 당시에도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나, 상인 가운데 제주시 삼도2동에 최상근(崔相根, 당시 60세)의 경우, 1910년 무렵 선친인 최학형(崔鶴淳)이 탕건 제작과 매매를 하다가 입도하여 이를 계속했다. 뒤를 이어 최상근이 1950년대에 입도하여 선친의 일을 도왔다. 이후 가업을 이어받아 양태, 총모자, 탕건 등의 상가를 2대째 해왔다고 한다. 대구에서 갓방을 경영하다가 1960년에 제주도로 들어온 일도 2동의 정기모(鄭基模, 당시 30세)도 양태, 총모자, 탕건 등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갓일 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인 고재구(총모자), 모만환(양태장), 전덕기 · 김봉주(입자장)등 1세대 보유자들은 거제에 살던 모만환을 제외하고 경남에 거주하는 남자 장인이었다.

1967년 제주도를 조사한 김영돈도 1964년에 조사했던 충무나 거제도와 달리 제주도의 말총공예는 당시에 이미 남성보다 부녀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공예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말총공예 기술을 제주도 부녀자들이 언제 어떻게 습득한 것인지는 구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당시 고령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1910~20년대에는 충무시를 비롯한 본토인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양태, 탕건 등 정리 작업과 갓 제작을 하던 사람들이 흔했고, 이들이 1960년 초만 하더라도 작업에 종사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제주도에서 창안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갓 제작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제주도에서 갓을 제작한 사람 가운데 제주도민은 거의 없었고 본토에서 들어온 남성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오늘날 상인들도 본토에서 입도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갓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제주시 서문교 중심의 다섯 곳에 모여 살았다. 이들은 모두 본토인들로서 제작된 갓은 거의 본토로 보내졌고, 제주도 내에서는 소량이 매매되었다.

제주도는 6~7세부터 부녀자들이 누구나 말총공예를 익혀 70~80세에 이르도록 말총공예를 지속했으나 1967년 조사 당시 6~7세된 소녀들이 이 기술을 습득하는 예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말총공예를 잇고 있는 대부분 여성은 40세 이상의 부녀자들이었다. 다만 조천면 신흥리의 탕건 작업의 경우는 소녀들이 14~15세에 이르면 탕건 작업에 임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중요무형문화재 말총공예기술 전승을 위한 공동체의 참여와 지원

1. 말총공예기술 전승현황과 문제점

1) 말총공예 제작기술 전수

전통공예가 처한 현실은 다중적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원형위주의 기술을 유지해야 하는데, 말총공예는 전통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승의 측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전통공예기술은 유지될 수 있으나 전승측면에서는 결과물인 전통공예품의 수요가 있어야 기술도 유지될 수 있다. 작품활동을 통해, 전수교육을 통해 기술이 전승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수요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결국 따로 생계를 유지할 기반이 있거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창의성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전통과 현대화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내야 한다. 이처럼 전통기술 역시, 사회적 수요가 없기에 다양한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다. 말총공예의 경우 주요기술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의 머리 크기에 따라 제작하는 기술은 사라지고, 일률적인 크기로 만드는 기술만이 전승되고 있다.

갓일은 차양을 이루는 양태와 그 위로 솟은 대우 부분으로 분리되며 이 두 부분은 재료도 다르며 제작 기술자도 다르다. 양태는 대나무를 실오라기처럼 펴서 절어나가는 것이며, 총대우는 말총으로만 뜨기 때문에 총모자라고도 일컬어진다. 양태와 총모자는 각 가정 부업으로 제작되며, 이것을 거두어 들여 사용할 수 있는 갓으로 가공조립하는 것이 입자장의 기술이다. 이 때문에 입자장은 양태와 총모자를 제작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까닭에 1964년 처음으로 갓일을 지정할 때 기능보유자도 양태장, 총모자장, 입자장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였다. 그러나 입자장의 경우, 과거에는 더욱 세분화된 작업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다. 이른바 골배기,[04] 수장,[05] 버렁[06]이 그것이다. 그러나 갓의 수요가 적어 골배기, 수장, 버렁을 분업화하지 않고 한 사람의 입자장이 전 과정을 해내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따른 기능수준 저하와 일하는 속도도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1967년 조사 당시만 하더라도 여아가 7세쯤 이르면 점차 기술을 익혀나가 15세쯤 되면 한 사람 몫의 탕건 작업을 감당하였다. 이후 평생을 이어나가기도 하는데 제집 방안에 작업하던 탕건 도구를 두고 바깥일을 보다가 여가가 있을 때마다 일해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통 2~3명, 또는 6~7명이 한 집안에 모여 앉아 작업하기도 하는데 그 집을 '탕근청'이라고 했다. '줄살린 탕건'이거나 '잠진탕건'이면 3일에 1개를, 중탕건이면 2일에 1개, 엉근 탕건이면 1일에 한 개를 짜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잣는 총으로는 제주소의 쇠꼬리털을 사용하는 수도 있었으나 드물어 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구술에는 유독 말총 못지않게 소총(소꼬리털)에 대한 이야기와 소총을 이용해 더 고운 관모를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마문화(馬文化)를 넘어 목축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제시기에 제주도 공동목장에는 말보다 소가 집중적으로 방목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 여성들은 소총을 이용한 관모제작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제주도를 다녀간 일본인들의 축산 관련 기록들을 통해 당시에 소총으로 만든 모자공예 제작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07]

현재에는 갓일, 망건장, 탕건장은 '전수교육관 활용 강습

04 말총모자를 나무골에 꼭 맞게 박아서 삶고 다시 아교풀칠을 하여 말총가닥을 고정시키는 일.
05 골배기한 모자에다 옻칠을 한 뒤 모자의 천개에다 대올로 정매기를 하고 그 전체를 생초로 싸서 먹칠하는 과정까지를 이름.
06 양태를 가공하는 공정으로, 대올로 절은 양태에다 아교풀을 올려 먹색으로 염색하고 옻칠을 하며, 인두로 지져서 둥글게 구배를 잡은 뒤 거죽에 생초를 입히고 철대와 거철을 다는 일관된 작업을 이른다. 완성된 부분품을 하나로 조립하는 것을 목박는다고 한다. 이는 버렁장의 계속적인 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버렁일의 일괄작업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07 今村鞆, 1929, 「濟州道の牛馬」『朝鮮』 8月號;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7, 『'濟州道'의 옛 記錄』 pp.41~49쪽에는 '제주인들은 소털로 모자를 만들어 팔았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사업'을 통해 10명 이상의 강습생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전통학교 강습사업'을 통해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1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제작과정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청소년 포함 젊은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제작기법으로 응용 교육을 하고 있다.[08]

말총공예종목의 전승자는 대부분 보유자의 가족이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전승체계는 망건 기술 전승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가족 중심으로 기술이 전승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전승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기술 전승을 보다 활발하게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

2) 수요창출과 원재료 수급

1960~70년대의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는 현대화와 더불어 갓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아 그 수요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를 생업으로 종사하는 기능자는 거의 몇 명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른 공예기술 분야와 달리 말총공예분야는 현대에 만들어진 재료 없이 하나같이 원 재료를 손으로 다듬어서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 다시 한번 붙이거나 엮어서 사용된다.

김영돈에 의하면 1967년 당시 총모자를 작업하기 위한 말총은 주로 제주도의 말총을 재료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절임줄 감으로 잣는 총은 가는 것을 사용하고, 날줄로 쓰이는 날총은 굵은 것을 사용하였다. 당시 말총은 1양에 70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는데 날총과 잣는 총의 가격은 같으며 말총의 색상과는 상관 없이 동일한 가격이었다. 1양으로는 모자 3~4개를 제작할 수 있다.

광복 이전까지는 일명 '왜총'이라고 하는 길이가 길고 양질인 총이 일본에서 유입되었고 이를 사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당시에는 모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말총을 쓰고 있었다. 탕건 작업이 가장 성행한 조천면 신흥리에서는 광복 후에도 왜산 말총을 가끔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재일교포들 가운데 귀국 시 지참해 온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제주도 말총장수 혹은 엿장수를 통하여 제주도산 말총을 구입하는 경우, 일양 당 100엔 내외이며 말총 일양으로는 보통 탕건 2개를 제작할 수 있다.

오늘날 말총은 대체로 외래종 말에서 나온 것을 사용한다. 제주마에서 나온 말총은 꼬리가 짧아서 망건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09] 보유자들은 대체로 1960년대부터 이미 왜총이라 불리는 일본산 말총을 시장에서 구입해 쓴 것을 보았다고 한다.

수입산 재료의 사용은 망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전통공예라 하여 무조건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수입산 재료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국가에서는 수공예품과 대량생산품을 구분한 고가-중가-저가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협소한 국내시장의 창출을 위한 확대방안, 수요자와 시장중심의 공예품 개발 연구 및 사업화 추진체계,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타파를 위한 인증제 공예품 전문매장 확보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각 종목별 인증제의 요소이자 판단근거가 될 핵심 제작기법(기량)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해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것인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증제가 종목별 전승활성화에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08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일반인 대상의 기술 전수교육프로그램인 '전통학교'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말총공예 종목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11월 사이 매주 화요일 14:00~16:00 까지 전통학교를 열고있다.

09 제주마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40년대로 약 2만여 마리가 사육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마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1986년에는 1,300여 마리로 거의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2. 말총공예 전승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지원방향

말총공예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은 전통공예가 처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전승현장, 그리고 전승자를 포함한 전승집단과 공동체에서 찾아야 옳다.

그동안 전통공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공예산업으로서의 진흥책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예산 지원책에 집중되어 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예산 지원은 원재료 구입과 전수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예산을 따라가는 데 무리가 있다. 수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국가가 구입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에 합당한 전승책과 진흥책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과 닿아 있다. 전통공예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문화와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지역전통문화와의 기능적 연계가 가져다 줄 경제적 상승효과를 통해 자생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예품은 예술적 · 문화적 · 산업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효과가 지대하다. 그러나 공예산업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재 공예품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

말총공예는 일찍이 1960년대에 이미 예천, 통영, 제주지역에 한정되어 제조 · 공급되어 왔으나 지역성을 살리기보다 특정 보유자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을 통해 지역문화로 살리는 방법을 국가와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부처의 연계와 전승자들의 최고기술 습득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해당 유산의 지역 문화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창조적 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당 유산을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역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조적 계승을 염두에 둔다하더라도 전통기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원재료의 확보이다. 말총공예의 경우,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주요 재료는 말총, 대나무 등이다. 나머지는 오롯이 손기술과 경험에 따라 가능하다. '전통사회에서 공예는 문화이자, 산업이었고, 예술이자 기술' 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10]

맺음말

중요무형문화재 공예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발의를 기점으로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활용'지원의 강화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통공예품 인증제, 전통공예품 은행제, 전통공예품 전시 · 판매장 설립, 공공구매 확대 등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무형문화유산법'제정(안)에 담아 법률(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간접지원 강화 차원에서 작품구입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1]

그간 국가에서 추진해온 전통공예품 제작 활성화 정책은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하여 이수자 확보, 보유자 지원, 종목 활성화 등 협력적 관계망 구성'이라는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지금까지 공예종목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은 대체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보다는 취약하기 때문에

10 최공호, 2008,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미술문화』, p.43.

11 문화재청은 전통공예품 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 최근 5년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통공예품 총 36억원 해당하는 공예품을 구매하여 해외공사관 등에 배치하였다. 구매현황은 2009(201점), 2010(198점), 2011(205점), 2012(316점), 2013(120점) 등이다.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런 지원책은 취약종목이 활성화 종목으로 전환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전승취약 종목인 '갓일'을 비롯한 '탕건장', '망건장' 등의 말총공예 종목이 여전히 삶과 유리되어 사회적 수요가 거의 없어 제작기술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전통공예가 처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지속과 변화양상을 짚어본 결과, 전승현장과 공동체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공예종목의 전승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金榮敦, 1967,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34호,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 2001,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 예용해 · 이두현, 1964, 『갓일–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4호, 문화재관리국
- 위주영, 2010, 「한국 전통공예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전남대
- 이종석, 1984, 『갓일–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8호, 문화재관리국
- 최공호, 2008,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 『미술문화』
- 최공호, 1999, 「통영갓의 전통과 과제」 『전통공예의 산실 통영공방의 재조명』, 학술발표회 자료집, 문화재청 · 경상남도
- 황경순, 2014,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전승자 구술채록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갓일(총모자)’ 김인 명예보유자의 구술채록을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September 2014, pp.160~171.*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Continuance and Changes of Horsehair Handicraft Tradition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wang Kyeong-soon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the art of making these items needs to be considered with the focus on the following factors: the local situation of the areas where such traditional handicrafts are still made, the craftspeople involved in their production, and their communities. So far, discussion about how to reinvigorate traditional handicrafts, including those mentioned above,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measures taken to promote them as part of the handicrafts industry and the allocation of the government's budget for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 government runs a traditional handicrafts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the craftspeople and spaces for exhibiting their work. This form of support has led to systematic management of traditional handicrafts and heightened public interest in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publicizing the country's traditional crafts, but has made little progress in the following areas: the fostering of young people willing to learn traditional skills, diversification of the types of skills to be maintained, or establishment of the networks of collaboration among the craftspeople. The most important aspect among the efforts mentioned above is to maintain cultural traditions that are unique to each region by encouraging local craftspeople to engage in their work with a solid sense of pride backed up by financial suppor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need to reinvigorate the art of making tanggeon (horsehair crown), manggeon (horsehair headband), and gat (black horsehair hat), which few people wear as they are used only for ornamental purposes nowadays. This study examine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artisans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horsehair handicrafts prior to their designation as a cultural heritage, and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loc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their production after the designation, in order to assess the status of inheritance of this tradition.

Key Words Horsehair crafts, Traditional Craft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014. 06. 30 I Revised : 2014. 07. 17 I Accepted : 2014. 08. 08